

# 厲菴 鄭道鉉의 生涯와 學問世界

이 의 장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학문 세계 |
| II. 가문과 성장과정 | V. 맺음말    |
| III. 학문 행보   |           |

<국문 초록>

본고는 厲菴 鄭道鉉(1895-1977)의 저술과 부록으로 이루어진 『厲菴集』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규명하였다. 정도현은 학자로서의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라는 지극히 왜곡된 사회를 살아야만 하였다. 개인이 만약 사회적 요구와 자신의 가치체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탐색하는 데 있어, 정도현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참고를 제공해준다.

정도현은 고종 32년(1895) 7월 22일 함양의 薇川에서 鄭在沃과 豐川 盧氏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河東이고, 조선조 5賢의 한 분으로 성리학의 대가였던 鄭汝昌은 그의 14대 조이다. 정도현은 정여창의 삶과 학문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정도현은 7세부터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20세에 이르기까지 덕행을 지닌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정도현의 본격적인 학문 행보는 田愚(1841-1922)를 스승으로 삼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도현은 전우로부터 性理學을 전수받았고, 전우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성리학을 심화시켜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jgutang@wku.ac.kr

나간다.

정도현의 학문 세계는 心性論과 禮論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구축되어 있다. 그의 심성론은 ‘心卽氣’의 입장에 서있는데, 이는 전우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性を 높이고 心を 낮추어야 한다는 ‘性尊心卑說’ 및 性を 스승으로 받들고 心은 제자로서 性を 따라야 한다는 ‘性師心弟說’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도현은 禮의 실천을 심성론 못지않게 중요시하였다. 예의 각 조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였다. 그에게 있어 禮란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말하는 ‘에티켓’ 정도에 그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예론은 규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心卽氣’의 심성론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왜곡된 사회에 대한 개인의 대응 자세는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체계에 맞도록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유형, 둘째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지키며 왜곡된 사회가 바로잡히기를 기다리는 유형, 셋째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바꾸어 왜곡된 사회에 영합하는 유형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유형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고, 셋째 유형은 가장 비굴한 삶의 자세로 모두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도현은 자신의 삶을 “텅 빈 산에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홀로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향기를 보존하고 있는” 蘭에 비유하였다. 그 자신 性を 높이고 禮를 지키며 왜곡된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蘭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蘭이 과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이 없다면 홀로 향기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일까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주제어】 鄭道鉉, 厲菴集, 田愚, 心性論, 禮論

## I. 머리말

한문 고전을 읽은 사람은 아마도 맹자의 다음 구절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실행하고자 함이다.[夫人幼

而學之, 壯而欲行之.” 만약 어떤 사람이 젊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상은 그가 배운 내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학문의 내용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체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되고 전도된 비정상적인 사회일 경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통치하고 있던 조선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왜곡되고 전도된 비정상적인 사회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사회가 초래되었을 경우 학문을 닦아 일정한 가치체계를 확립한 공부인은 과연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 곧 사회적 요구와 자신의 가치체계가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옳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본고는 厲菴 鄭道鉉(1895-1977)의 저술과 부록으로 이루어진 14권 5책의 『厲菴集』<sup>1)</sup> 내용을 분석하여 그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는 일정한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일본 식민통치의 왜곡된 사회 전 과정을 살아온 인물이다. 때문에 위에서 제기된 고민의 해답에 일정한 참고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가 의의를 갖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II. 가문과 성장과정

여암 정도현은 고종 32년(1895) 7월 22일 함양의 薇川에서 鄭在沃과 豐川 盧氏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 노씨는 道谷書院에 배향된 松齋 盧叔全의 후예인 盧昌鉉의 따님으로 성품이 명민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女君子’라는 칭호를 들었다.<sup>2)</sup>

1)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古 D3B H정225권 v.1-5].

그가 태어난 19세기 말의 사회는 조선의 역사 이래 가장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甲午更張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강압 아래 조선 정부가 진행한 대대적인 내정개혁이었는데, 바로 그가 태어나기 전개의 일이었다.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참혹하게 시해당하는 乙未事變은 그가 태어나고 두어 달이 지나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의 가문은 고려 때 密直副使를 지낸 鄭國龍의 후예로서 河東을 본관으로 한다. 중부시 정을 지낸 鄭之義 때부터 함양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sup>3)</sup> 그의 17대 조가 된다. 그의 世系를 문집에 수록된 몇 편의 行狀과 『萬姓大同譜』를 참고해 도표로 간략히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약도>

國龍-之衍-宥-堅-之義-復周-六乙-汝昌-希高-彥男-大民-弘緒-光淵-世禎-熙運-孝獻-鎮普-德海 | 東琪  
 | 東休-「煥瑤  
 | 煥國-「在沃-「道鉉-「淳顏  
 | 在庸 | 碩鉉 | 淳曾  
 | 淳孟

위 세계 약도 인물의 몇몇에 대하여 설명해 본다. 16대 조가 되는 鄭復周(1367-?)는 호가 竹堂으로 전농시 판사를 역임하였는데 도곡서원에 배향되어 있다.<sup>4)</sup> 鄭汝昌은 조선조 5현의 한 분으로 성리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그의 14대 조가 된다. 정여창은 그의 삶과 학문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니, 정여창에 대한 송모의 정을 표현한 시작품 두 수가 문

2) 鄭道鉉, 『厲菴集』 卷13, 「先考華圃府君家狀」, 14판, 전면, “夫人豐川盧氏, 松齋先生叔全之後昌鉉女, 性亦通敏, 人稱女君子.”  
 3)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考薇隱府君家狀」, 4판, 후면, “四傳至宗簿寺正諱之義, 始居咸陽.”  
 4) 鄭道鉉, 『厲菴集』 卷13, 「先考華圃府君家狀」, 12판, 전면, “有諱復周號竹堂, 典農寺判事, 享道谷院.”

집에 보인다. 「蘆山精舍謹次先祖文獻公板上韻」과 「過文獻洞有感」인데, 앞 작품을 읽어본다.

百代風敦鄙薄夫	백대의 풍도는 비루한 필부들을 돈독히 만드니
苦忠危節泰山高	태산보다 높은 충성과 절개를 지니셨기 때문
农民惠澤無窮蔭	무궁한 음덕으로 민족에게 혜택을 끼쳐주니
世世相傳啓幾豪	대대로 전해져 얼마만한 호걸들을 계도할 것인가 <sup>5)</sup>

작품 내용은, 기구와 승구는 伯夷와 叔齊의 풍도를 들으면 완악한 인물들이 청렴해지고 나약한 인물들도 뜻을 확립하게 되듯이, 높은 충성심과 깨끗한 절개를 지녔던 정여창의 풍도를 들으면 비루했던 사람들도 모두 돈독한 행실을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전구와 결구는 그가 무궁한 음덕으로 우리민족에게 혜택을 끼쳐주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수많은 호걸들을 계도해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작품은 그가 67세인 1961년에 지은 것으로 정여창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한 평생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미루어 본다면 정여창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정도현은 율곡 이이의 학맥을 이은 良齋 田愚(1841-1922)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닦게 되는데, 그가 영남의 학자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부안의 繼華島까지 찾아가게 되는 인연은 그의 9대 조 滄州 鄭光淵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의 무고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문묘 종사를 청하다가<sup>6)</sup>, 결국 이로 인해 黃山道 察訪으로 귀양을 갔던 인물이다.<sup>7)</sup>

정도현의 7대 조가 되는 鄭熙運은 이인좌의 난 때 영남에서 동조하여

5) 鄭道鉉, 『厲菴集』 卷1, 「蘆山精舍謹次先祖文獻公板上韻」, 49편, 후면.  
 6) 鄭道鉉, 『厲菴集』 卷13, 「高祖考秀軒府君家狀」, 1편, 전면, “生諱光淵, 以館薦除察訪. 遊太學時, 爲牛栗兩先生辨誣疏, 請從祀文廟, 學者稱滄州先生.”  
 7) 鄭道鉉, 『厲菴集』 卷13, 「先考華圃府君家狀」, 12편, 전면, “生諱光淵號滄州, 與宋師傅時瑩朴進士以懃, 上牛栗兩辨誣疏, 被出爲黃山道察訪.”

거병했던 정희량을 토벌하기 위해 자질들을 거느리고 창의하여 정려의 표창을 받았다.<sup>8)</sup> 이하 鄭孝獻, 鄭鎮普, 鄭德海, 鄭東休의 네 대는 모두 고장에서 명망을 지녔으며 효성과 우애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다.<sup>9)</sup>

할아버지 鄭煥國은 문예를 일찍이 성취하여 소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시문을 잘 지어 많은 驚句를 가지고 있었다. 상당한 수준의 학문과 문장을 지니고 月皐 趙性家(1824-1904), 嵇樵 閔致亮(1844-1932) 등과 막역한 교우를 맺었다. 저술한 시문이 거의 책상에 찰 정도로 많았는데 유고 1권만을 남기고 있다. 당시 성행하던 문집 간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원고의 수습에 전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0)</sup>

정환국은 손자 정도현에 대하여 각별한 기대를 걸었다.

삼가 일찍이 들었다. 할아버님께서 月皐 趙性家에게 말하기를, “손자가 있는데 평범하지 않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시키기로 결심하였소. 일찌감치 공 밑에서 공부하며 천한 일을 하도록 하겠소.”라고 하자, 조공도 그것을 허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갑자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어 곡하게 되었다.<sup>11)</sup>

그는 비범한 손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갖고, 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무릎에 앉혀놓고 유학의 성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문묘에 종사된 현인들의 성과 관향 및 시호, 신체의 정수리로부터 발꿈치에 이

8)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考薇隱府君家狀」, 4판, 후면, “諱熙運號東峯, 以繡薦特除厚陵參奉, 戊申亮亂, 率子姪倡義, 贈佐郎, 以忠義命旌.”

9)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考薇隱府君家狀」, 4판, 후면, “諱孝獻鎮普·德海·東休四世, 皆有鄉望, 并以孝友聞.”

10)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考薇隱府君家狀」, 6판, 후면, “生平所著詩文, 幾乎盈床, 而無一言私藏, 所親或勸之, 府君必不肯曰: ‘目今世教益衰, 文風淆亂, 手不知灑掃之節, 而說理說氣, 剽竊古人糟粕, 人人文集, 某所不取也.’ 只有遺稿一卷.”

11)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考薇隱府君家狀」, 7판, 전면, “竊嘗聞之, 府君嘗謂趙月皐曰: ‘有孫不凡, 吾將決意就學, 早使執鞭於公之腳下.’ 趙公亦肯許之, 而道鉉年才五歲, 奄哭府君.”

르기까지의 제 명칭 및 오장 육부 등의 여러 글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위우도록 하였다.<sup>12)</sup>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는 향년 49세로 정도현이 5세였을 때 세상을 뜨고 만다.

부친 鄭在沃은 어려서는 鼓山 任憲晦(1811-1876)의 제자였던 족형 鄭煥周에게서 『격몽요결』을 읽어 학문의 길을 알았고, 장성해서는 조성가의 문하에 간간히 출입하였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 부친인 정환국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다니느라 집안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집안일을 전담해야 했다. 하지만 정재옥이 甲戌科에 응시하려다 과거의 문란을 목격하고 응시를 포기했다는 행장의 내용<sup>13)</sup>을 감안하면, 그도 또한 일정한 학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재옥은 자제의 교육에 매우 관심을 가졌다.

부군은 義教에 돈독하여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배우게 하였는데, 반드시 賢師를 택하면서 “처음 주입되는 견해가 잘못되면 두려워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후하게 대우하면서 맞아들이고 보내고 하였다. 서당 안의 여러 일을 모두 스스로 담당하면서 비록 자잘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도 간섭하지 못하게 해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sup>14)</sup>

부친 정재옥이 자식의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그의 선친이었던 정환국이 기대를 걸고 가르치려 했던 아들

- 
- 12) 鄭道鉉, 『厲菴集』附錄, 「行狀」, 1판, 전면, “纔學語, 薇隱公常置膝, 口授自先聖至我朝升應諸賢, 姓貫號諡, 及自頂至踵, 五內臟腑, 諸字一一輪誦, 五歲薇隱公遽歿.”
- 13) 鄭道鉉, 『厲菴集』卷13, 「先考華圃府君家狀」, 12판, 전면, “遂易子而請教於族兄薇山煥周之門, 公即文敬公任鼓山高足也. 授以擊蒙要訣, 乃知爲學之方. 及長, 與弟在庸, 間嘗出入於月臯趙性家之門. 以先君之遊京, 早擔家務, 不專業. 嘗以先君命, 赴甲戌科, 中路見舉子之不甲戌者, 卽旋欄曰: ‘末世宦路, 類皆如此. 先欺其君者, 豈可以忠君乎?’ 聞者皆義之.”
- 14) 鄭道鉉, 『厲菴集』卷13, 「先考華圃府君家狀」, 13판, 전면, “府君篤於義教, 使不肖兄弟早學, 必擇賢師, 曰: ‘先入之惑, 可畏也.’ 必厚待以送迎之, 凡齋中諸務, 一皆自擔, 雖細微事, 使不肖輩少不干涉, 勿間斷.”

이었기 때문에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현의 가정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할머니 驪興 閔氏라고 할 수 있다. 그가 38세 때 지은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은 문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편목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로 3천자가 넘는 장문의 글이다. 이 행장의 내용에 따르면, 여흥 민씨는 비록 여자였지만 유학 도통의 연원, 중국의 伏羲氏로부터 우리나라의 명현에 이르기까지의 성, 호, 사적을 대략 이해하고 있었으며, 士禍와 黨色 및 보학, 전장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종숙 閔致亮이 40여 년의 세월을 궁궐에서 벼슬하며 참의에까지 이른 고관이었기 때문에 얻어들은 것이었다.<sup>15)</sup>

정도현은 여흥 민씨의 생애를 기술하면서 자애로운 그의 인품을 사례를 들어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읽어본다.

계묘년(1903)에 흉년이 들었는데, 간혹 수수죽도 끓여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늪은 박만 끓여 먹었다.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오직 의리로써 받고 물리치고 하였다. 거지들이 대문에 넘쳤는데 비록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있으면 반드시 고르게 나누어주고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더 많이 주었다. 여중들이 간혹 발로 차서 주면 반드시 꾸짖기를 “이들도 사람이다. 배불리 먹여주지도 못하면서 어찌 다시 모욕까지 한단 말이나? 오늘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뒷날 굶주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나이든 여자 거지에게는 반드시 어린 자식이 있냐고 묻고, 어린 여자 거지에게는 반드시 늙은 부모가 있냐고 물어 항상 밥을 더 주었다.<sup>16)</sup>

15)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 7판, 후면, “至若道統道統淵源, 自伏羲至于我朝名賢, 略知其姓號事行, 而士禍黨色若譜學典史之類, 亦知其梗概, 其從叔參議致亮, 四十年從事於殿內故也.”

16)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 8판, 후면, “癸卯年歉, 或至炊黍不繼, 而只烹老瓢者亦數日. 然人或周之, 惟義取捨. 流丐盈門, 雖一飯一粥, 有必均分, 而有疾者必加匙. 婢輩或蹴以與之, 必責之曰: ‘此亦人. 既不能使飽, 忍復侮爲? 安知今日之食, 或爲後日之餓乎?’ 乞婆之老者則必問有幼子, 少者則必問有老親, 每加以飯.”

정도현이 아홉 살이었던 1903년에 크게 흉년이 들어 유리결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여흥 민씨가 동냥을 구하러 찾아온 거지들을 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곤궁한 처지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던 의연한 자세와 거지들을 인정 있게 대하는 자애로운 모습이 어린 그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흥 민씨는 몸가짐을 매우 신중히 하여 임신했을 때마다 거처와 음식을 옛 법대로 따랐고 해산을 했을 때는 음식을 조절하고 출입을 삼갔는데, 다섯 자녀를 모두 잘 키운 것도 몸가짐을 신중히 한 결과라고 하였다.<sup>17)</sup> 또한 그는 살림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항상 “의복과 건물은 자기만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 참아야 하고, 언행과 처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더욱 힘써야 한다.[衣服宮室, 當思不如我者而小忍之, 言行事爲, 當舉賢於我者而加勉焉.]”라고 말하였는데<sup>18)</sup>, 지금도 의미심장한 격언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명철하였던 여흥 민씨는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가르침을 다양하게 베풀다가 향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가 정도현에게 얼마나 커다란 존재였는지를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옛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할머니를 공평하게 평가한다면, 孔子의 이른바 “섬기기는 쉬어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程子の 이른바 “가슴에 가득 찬 게 모두 측은지심이고”, 朱子の 이른바 “자신을 봉양하는 데에는 인색하지만 베푸는 데에는 너그러우며, 의를 두텁게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겼던 분”이라는 것이 거의 가까운 평이리라. (中略) 아! 슬프다. 나의 글쓰기가 졸렬하여 만분의 일도 형용하지 못하고, 학업은 성취된 바가 없어 선조의懿德을 실추시키고만 있다. 그리하여 할머니께서 평상시 기대했던 것에 하나도 부응하지 못하고 또

17)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 9판, 전면, “每妊娠, 居處飲食, 略遵古法. 及生子, 慎其沐, 節其食, 謹其出入. 凡五子女, 無一人之見慘, 是亦謹慎之一驗也.”

18)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 9판, 후면.

그분의 숨겨진 덕행을 한두 가지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더욱 황송함을 견딜 수 없다.<sup>19)</sup>

여흥 민씨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면서 공자, 정자, 주자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할머니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쳐나고 있다. 어머니 풍천 노씨에 대한 행장은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양자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그가 어머니보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학문 행보

앞 장에서 논술한 정도현의 가문과 성장 과정을 통해 그가 일찍부터 학문의 길에 발을 들여 놓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그의 일생에 걸친 학문 행보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도현은 7세부터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교재로 선택한 것이 바로 『小學』이었다. 원래 훈장이 『通鑑節要』를 가르치려고 하였는데, 그는 “무릇 학문이란 사람이 되는 길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거절하면서 『소학』 배우기를 자청하였다고 한다.<sup>20)</sup> 이는 그가 정여창을 14대 조로 하는 성리학적 가문에서 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

이후 그는 『소학』의 내용을 몸소 실천하면서 학업에 전념하여 문리가

19) 鄭道鉉, 『厲菴集』 卷13, 「祖妣孺人驪興閔氏家狀」, 11판, 후면, “以古人所言, 稱停論之, 則孔子所謂易事而難悅, 程子所謂滿腔子是惻隱之心, 朱子所謂膏於奉而豐於施, 厚於義而薄於財者, 其庶幾乎. …… 嗚乎痛哉! 道鉉筆荒詞拙, 不能形容其萬一, 而學無所成, 徒墜先懿, 無一副祖妣之平日所期望, 又不克闡發潛德之一二, 尤不勝悚惶.”

20) 鄭道鉉, 『厲菴集』 附錄, 「行狀」, 1판, 전면, “七歲上學, 不數月, 塾師教通史, 先生不肯曰: ‘夫學, 所以學爲人之道, 請小學.’”

일취월장하였으며, 20세를 전후하여서는 선배로서 덕행을 지닌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심화시킨다. 이때 교류한 인물로는 竹醒 鄭闇教, 明湖 權雲煥, 厚山 李道復, 晦山 李宅煥, 復齋 趙鏞肅, 松山 權載奎 등이 있었는데, 정은교로부터는 “일두 옹의 집안에 다시 이런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이도복으로부터는 “앞으로의 명망은 기호에선 송낙헌에게서 보게 되고, 영남에선 정도현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하였다.<sup>21)</sup>

정도현의 본격적인 학문 행보는 艮齋 田愚(1841-1922)를 스승으로 섬기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편지글은 전우에게 스승으로 섬기며 배우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제가 외람되어 친구들로부터 옆에서 들으니, “우리나라에 艮齋 田先生이 계시는데 울곡 이이, 우암 송시열 이하 매산 홍직필, 전재 임헌회의 연원을 바르게 얻어 우뚝하게 사문의 맹주가 되고 우리 도통의 結局이 되었다. 그리하여 4천 년 도통의 전수와 5백 년 문화의 성대함이 선생에 의지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박잡하고 여러 욕심이 번갈아 공격해 습관과 식견이 그 때문에 고질이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灑掃의 일이나마 선생의 강석 아래서 올리며 하루라도 보고 느껴 감화를 얻고 싶었습니다만, 선생의 덕에 누를 끼치게 될까 주저하며 물러난 것이 또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中略) 삼가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특별히 받을 들여놓을 수 있는 땅을 하사하여 차별 없이 베푸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저의 오랜 습관을 만분의 일이나마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주신다면 천지의 길러주는 인과 성현의 이루어주는 의가 또한 매우 깊고 크게 시행되는 것이니,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감히 힘을 다해 종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22)</sup>

21) 鄭道鉉, 『厲菴集』附錄, 「行狀」, 1판, 전면, “自後, 晨必盥漱, 每朝省親, 然後就讀, 凡百皆以小學爲準…文理日就…及長, 廣遊遠方, 從逐先輩長德, 如鄭竹醒闇教·權明湖雲煥·李厚山道復·李晦山宅煥·趙復齋鏞肅·權松山載奎諸公也. 竹醒答復齋書曰: ‘蠹翁家裏, 復見伊人.’ 厚山曰: ‘後來聲望, 於湖見宋洛憲, 於嶺見鄭道鉉.’ 此皆先生弱冠前後也.”

22) 鄭道鉉, 『厲菴集』卷2, 「上艮齋先生」, 1판, 전면, “道鉉猥從士友之間, 側聞東

이 편지는 정도현이 24세가 되는 1918년에 전우에게 보낸 것이다. 전우는 이때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라.[道不行乘桴浮于海]”는 孔子의 말을 따라 ‘浮海之意’를 결행하여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육지를 밟지 않은 채 繼華島에서 강학하고 있었다. 그는 고산 임헌회의 문하에서 수학함으로써 농암 김창협→도암 이재→미호 김원행→근재 박윤원→매산 홍직필→고산 임헌회로 이어져 오는 기호학파의 주요한 학통을 계승하였다.<sup>23)</sup> 그의 전우에 대한 존모의 뜻은 매우 극진하여, “4천 년 도통의 전수와 5백 년 문화의 성대함이 의지해 있는 선생”으로 추앙하면서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다.

정도현은 위의 편지를 지니고 함양을 출발하여 전라도 계화도로 전우를 찾아 나선다. 이해 2월의 일이었는데, 행장은 그가 전우와 만나는 정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무오년(1918) 2월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계화도로 간재 선생을 찾아가 뵈었다. 간옹은 한번 보자마자 인재로 인정하고 가르침이 되는 말을 써서 주며 말하기를, “예전에 주자가 연평 선생을 뵈 때가 24세였다. 지금 그대가 나를 찾아온 나이가 마침 그 나이이다. 나는 비록 연평과 같은 선생은 못 되지만, 그대는 앞으로 주자가 되도록 하라.” 하고, 설을 지어 주셨다.<sup>24)</sup>

國有良齋田先生，嫡得栗尤以下梅全之源，巋然爲斯文之盟主，吾道之結局，而四千歲道統之傳，五百年文物之盛，賴吾先生而不墜於地也。自顧道鉉，受質至駁，衆欲交攻，氣習以之成癩，識見以之固蔽，雖欲供灑掃之役於先生臯比之下，獲遂一日觀感之化，恐累先生之德而躑躅退縮者，亦有年于茲矣。……伏願先生，特賜容足之地，獲蒙無類之教，使之革其舊染之萬一，則天地化育之仁，聖賢裁成之義，亦并行而深且大矣。道雖不敏，敢不竭力以從事也？”

23) 금장태, 「心卽氣說의 쟁점과 간재의 심설 논변」, 『한국유학의 심설』, 서울대출판부, 2002, p.123.

24) 鄭道鉉, 『厲菴集』附錄, 「行狀」, 1판, 후면, “戊午二月奉親命, 贊謁良齋先生于華島。良翁一見器重之, 書與訓辭, 申之曰: ‘昔朱子之贊延平, 在二十四歲。今君之贊賤子, 適其年。吾雖不爲延平, 君則將爲朱子也。’ 作說而贈之。”

함양으로부터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온 그를 전우는 기꺼이 제자로 맞아들여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이때 베푼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데, 아마도 20자의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sup>25)</sup>

그가 전우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양으로 돌아갈 때, 전우는 그에게 “근심하며 힘쓰고 두려워하며 위태롭게 여기라.[憂勤惕厲]”는 『周易·文言』에 보이는 내용을 따서 ‘厲菴’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그리고 서실에는 “주자를 크게 존경한다.[景慕乎紫陽]”는 의미에서 ‘景陽’이라는 편액을 달라고 부탁한다.<sup>26)</sup>

그가 전우로부터 받은 한 차례의 가르침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듯하다. 그는 함양으로 돌아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청한다. 문집에는 1919년 전우에게 질문하는 4편의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때의 상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정도현은 몇 차례의 편지로 가르침을 청하다가 다음 해에는 몇몇 인사들과 함께 계화도로 찾아가 거주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다.

다음해(1919) 봄에 선생은 영남의 사우들과 더불어 간옹의 대문 밖에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간옹은 그 집을 ‘葆真齋’라 이름 붙여 벽에 써서 붙이게 하였다. 다섯 해를 곁에서 모시면서 여러 책의 의심스럽고 어려운 곳을 일일이 물어 질정 받았다. 간옹이 칭찬하기를, “문리가 통창하니, 나머지 제자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喪禮備要』, 『四禮便覽』으로부터 『三禮增解』에 이르기까지 매번 구절구절을 기록하여 질문하였다. 간옹이 여러 제자들에게 말하

25) 정도현이 함양으로 돌아와 다시 전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前春所贈, 歸求二十字符, 謹當佩服.”(鄭道鉉, 『厲菴集』 卷2, 「上良齋先生」)이라고 한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26) 鄭道鉉, 『厲菴集』 附錄, 「行狀」, 1판, 후면, “及歸, 取文言‘憂勤惕厲’之義, 手書‘厲菴’錫號. …… 又曰: ‘學者不可無讀書室. 使扁之以景陽.’ 蓋景慕乎紫陽也. 命使成德泉璣運, 書景陽二大字遺之.”

기를, “정도현은 예론이 갈수록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운운하였다.<sup>27)</sup>

편지를 내왕하여 공부하는 것은 그 당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공부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시 해답을 얻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의문일 경우 편지로 질문을 제기하고 회답이 오기까지 한정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공부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에 정도현은 책 상자를 깊어지고 계화도로 건너가 전우의 대문 밖에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전우는 이 당시 79세의 고령이었지만 그가 거처하는 집을 ‘순진한 본성을 보존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葆眞齋’로 명명해주고 다양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그가葆眞齋에서 공부한 내용은 「華上語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앞부분에 수록된 두 조항만 읽어보도록 한다.

氣의 근본은 본디 바르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動하기만 하면 바른 것은 흠이 되고 치우친 것은 惡이 된다. 淸濁도 또한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기미를 살피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sup>28)</sup>

성이 높다는 것은 某의 사사로운 주장이 아니고 “형이상을 道라 한다.”, “대인은 하늘을 두려워한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 “顔回는 선을 얻으면 가슴에 새겼다.”(孔子의 말), “군자는 덕성을 높인다.”(子思의 말), “덕을 높인다.”(孟子의 말), “지극히 높은 것은 도이다.”(周子의 말), “나의 덕성을 높이어 성인이 되는 공부를 희망하나니, 하느님이 인의를 내려주어 이것을 공경하게 했기 때문.”(朱子의 말) 등의 말로 인하여 性이 원래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性是 높다.’고 말하는 것이다. 心이 낮다는 것은 某의 사사로운 주장이 아니고 “조심하여 공경하고 공경하였다.”(文王의 말), “검손함으로써 자신을 기

27) 鄭道鉉, 『厲菴集』附錄, 「行狀」, 1판, 후면, “翌年春, 先生與嶺士友, 築室于良翁門外, 翁命名以葆眞齋, 有壁貼. 五年侍側, 凡書之疑難處, 一一問質. 翁稱之曰: ‘文理條暢, 非餘子之可及.’ 自『喪禮備要』, 『四禮便覽』, 至『三禮增解』, 每每節錄質之, 良翁謂諸生曰: ‘道也, 禮論去益精密.’ 云云.”

28) 鄭道鉉, 『厲菴集』卷6, 「華上語錄」, 11판, 전면, “氣之本, 固無不正. 但纔動則正者善, 而偏者惡. 淸濁亦然, 不然則何必用審幾之功夫乎?”

르고 생각해서 몸을 낮춘다.”(孔子的 말),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論語集註』의 謝氏 말),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朱子の 말), 등의 말로 인하여 心이 원래 낮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心은 낮다.’고 말하는 것이다.<sup>29)</sup>

첫 번째 조항은 氣가 본래는 바르지만 動하면 善惡淸濁의 차별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우의 설명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조항의 ‘某’는 바로 스승 ‘田愚’를 피휘하여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우의 독창적인 ‘性尊心卑說’을 메모한 것이다. 이는 『艮齋集』의 「性尊心卑의據」<sup>30)</sup>에 수록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가 계화도의 보진재에 머물며 직접 전우에게 공부한 기간을 「행장」에서는 1919년 봄부터 5년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년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듯하다. 그가 28세 되던 1922년 7월에 전우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때 전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세 편의 輓歌를 절구시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東國先生出	우리나라에 선생이 태어나시어
吾林道氣明	우리 유림의 도의 기운이 밝아졌지요
文章餘事業	문장은 여사로 하신 일이었고
性理眞工程	성리의 연구가 참 공부셨지요
東國先生沒	우리나라에 선생이 돌아가시니
吾林道氣收	우리 유림의 도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市氓爭巷哭	시장 백성들도 다투어 골목에서 곡하고

29) 鄭道鉉, 『厲菴集』 卷6, 「華上語錄」, 11판, 전면, “性尊, 非某之私說, 乃因形而上謂之道, 大人畏天, 君子畏天命, 回也得善服膺(孔子), 君子尊德性(子思), 尊德(孟子), 至尊者道(周子), 尊我德性希聖學兮, 帝降仁義欽斯(朱子)等語, 而意性元來是尊底, 故曰性尊也. 心卑, 非某之私說, 乃因小心翼翼(文王), 卑以自牧, 慮以下人(孔子), 無欲上入之心(論語集註謝氏), 低著心(朱子)等語, 而意心元來是卑底, 故曰心卑也.”

30) 田愚, 『艮齋集』(『韓國文集叢刊』 335), 후편, 권14, p.140.

村婦亦蔚愁    시골 아낙네도 또한 부엌에서 슬퍼합니다

先生之出沒    선생의 탄생과 죽음에 따라  
輕重於吾東    우리나라 유학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金華日已暮    金華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痛哭灑西風    통곡하며 눈물을 서쪽 바람에 뿌립니다<sup>31)</sup>

제3수의 전우의 탄생과 죽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제1수와 제2수의 승구에서 말한 그의 생몰에 따라 道의 기운이 밝아지고 사라짐을 가리킨다. 또 제3수 전구에 보이는 ‘金華’는 오행에서 ‘金’의 방향은 서쪽에 해당하므로 서쪽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유학의 道統’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정도현은 전우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1년의 상복을 입었고, 30세가 되던 1924년 봄에는 마을 뒤에 서재를 짓고 스승의 유언에 따라 ‘景陽齋’라 편액을 건다. 그리하여 원근에서 찾아오는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간간이 산사 등을 찾아 조용히 공부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학문을 심화시켜나간다.<sup>32)</sup>

#### IV. 학문 세계

지금까지 정도현의 가문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전우로부터 기호학파의 학통을 전수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그의 학문세계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의 학문세계의 면모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학문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31) 鄭道鉉, 『厲菴集』 卷1, 「良齋先生輓三絕」, 4판, 후면.

32) 鄭道鉉, 『厲菴集』 附錄, 「行狀」, 2판, 전면, “粵三年甲子春, 結小齋于村後靜處, 扁以景陽, 蓋遵良翁之舊訓也. 自是, 遠近從學者衆, 舍不能容, 恐有害於習靜, 間或出接于所寺及山房.”

『여암집』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개인적 정서를 漢詩로 표현한 것이고, 권2는 동문 인사들과 왕복한 書, 권3은 친구들과 왕복한 書, 권4는 제자들과 왕복한 書, 권5는 친족들과 왕복한 書, 권6은 雜著書贈, 권7은 雜著, 권8은 序, 권9는 記와 題跋, 說, 論, 銘, 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까지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심성론이 가장 주요한 주제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권10은 上樑文과 碑, 권11은 墓碣銘과 墓誌銘, 권12는 墓表, 권13은 行狀, 行錄, 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 생활의 필요에 따라 지어진 실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14는 四禮便覽註補後로 冠禮가 12조, 笄禮가 4조, 婚禮가 35조, 喪禮가 222조, 祭禮가 64조로 구성되어 있는 禮論의 편찬이다. 이상의 문집 편찬 면모를 일별해보면, 정도현의 학문 세계는 心性論과 禮論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心卽氣’의 心性論

정도현이 견지했던 心性論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살펴인데 있어 가장 흥미를 끄는 자료는 권7의 雜著에 수록되어 있는 「讀晦峰集河謙鎮條辨」이다. 이 작품은 그의 학문이 가장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71세(1965)의 만년에 지어진 것인데, 晦峯 河謙鎮(1870-1946)이 1922년에 쓴 「讀一蠹集」이라는 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논변류의 글이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 그가 문제 삼고 있는 하겸진의 글을 단락 구분하여 제시해본다.

- ① 우리나라의 理學은 먼저 포은 정몽주를 일컫는다. 그러나 포은이 태학에 있을 때 강론한 설은 세월이 오래되어 전해지는 것이 없다. 한훤 김굉필도 일찍이 논저가 있지 아니하였고, 일두 정여창이 한 마디 말을 하여 앞 현인들이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세상의 유학자들은 모르고 있다.

② 한훤이 문기를 “心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일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無乎不在], 또한 처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亦無有處].” 하였다. 이는 송나라 유학자들의 “몸에 가득한 것이 모두 심이다[滿體皆心].”와 “心은 글자의 어미가 된다[心爲字母].”는 설과 암암리에 부합하여 하나가 된다.

③ 대개 몸에 가득한 것이 모두 심이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걷는 것이 모두 심에서 말미암는 것이지만[‘無乎不在’임] 심이 눈, 귀, 손, 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亦無有處’임]. 심은 글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 ‘性’, ‘情’, ‘志’, ‘意’가 모두 ‘心’ 자를 딸리고 있다. 이들 모두가 심이고 [‘無乎不在’임] ‘性’, ‘情’, ‘志’, ‘意’의 밖에 별도로 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亦無有處’임]

④ 이러한 뜻은 지극히 정밀하여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 이것을 살펴본다면, 세상의 유학자들이 심을 性에 상대시키면서 “性은 理이고 심은 氣이다.”느니 “心은 卑하고 性은 尊하다.”느니 하는 것들은 모두 논설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게 된다.

⑤ (中略) 대체로 나는 일찍이 단언을 하였다. “중국 성리학은 주렴계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일두로부터 시작되었다.”<sup>33)</sup>

하겸진은 김굉필과 정여창이 심을 놓고 문답한 내용을 가지고 性의 밖에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性理心氣’설과 ‘心卑性尊’설을 주장하는 ‘世儒’를 논박하고 있는데, 그가 겨냥하고 있는 비판의 칼끝은 전우를 향하고 있다. 이는 ‘心卑性尊’설이 전우의 독창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겸진이 「讀一蠹集」에서 주장한 내용은 정도현이 존경하는 14대 조

33) 河謙鎭, 『晦峯集』(아세아문화사, 1985.) 卷24, 「讀一蠹集」, p.481, “①我東理學, 首稱圃隱, 圃隱在太學時講說, 世久而無傳焉. 寒喧亦未有論著, 獨一蠹有一言, 可以發未發於前賢者, 而世儒亦莫之知也. ②寒喧問: ‘心在何處?’ 一蠹曰: ‘無乎不在, 亦無有處.’ 此與宋儒滿體皆心, 心爲字母之說, 暗合而爲一. ③蓋滿體皆心, 則目視耳聽, 手持足行, 皆由於心[無乎不在], 而不可謂心在於耳目手足[亦無有處]. 心爲字母, 故凡性情志意從心字, 皆是心[無乎不在], 而性情志意之外, 非別有心[亦無有處]. ④此義極精, 置水不漏, 有見於此, 則世儒之將心對性而曰: ‘性理心氣’, ‘心卑性尊’, 皆不待論說而自破矣. ⑤……蓋嘗斷之曰洛閩之學, 由濂溪始; 我東之學, 自一蠹始.”

정여창의 설로 정도현이 추앙하는 스승 전우의 설을 반박하고 있으니, 정도현은 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정도현은 하겸진의 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역시 단락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① 삼가 살펴보건대, 선조의 이 설은 대개 **心**이 출입이 있음을 논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심**의 본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추강 남효온과 더불어 **心**의 출입을 논하면서 “자신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천리의 밖을 돌아다니다가 잠깐 만에 가슴 속으로 돌아온다.” 운운하셨다. 그렇다면 선조의 이른바 ‘無乎不在, 亦無有處’의 여덟 글자는 이것과 암암리에 부합하고 있으니, 그것이 확실하지 아니한가? **心**이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無乎不在’라고 말하였고, 또한 일정한 처소가 없기 때문에 ‘亦無有處’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한훤이 **心**의 본체를 묻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묻기를 “**心**은 무엇이었어?”라고 하였을 것이고, 반드시 “**心**은 어디에 있소?”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心**은 **理**’인 것이 만약 某氏의 說과 같다면, 理란 실로 모든 物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亦無有處’라는 네 글자가 과연 理의 當體가 되겠는가? 선조의 理氣論에 말하기를 “**理**는 無營無爲이고, **氣**는 有運有用이다.” 운운하였으니, 이는 대개 理와 氣가 서로 섞이지 않지만 **心**과 **性**이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일단 ‘**心**은 **理**이다.’고 말하면, 理가 또한 有營有爲가 되고 **心**이 또한 無運無用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선조의 뜻은 또한 반드시 **心**을 氣에 소속시켰을 것이 너무도 분명해진다.

③ **性**은 無爲이고 **心**은 有爲임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尤翁이 일찍이 말하기를 “**性**은 **理**에 속하고, **心**은 **氣**에 속한다. 이는 푸른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눈을 가진 사람은 모두 보고 봉사만이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어지럽게 주장한단 말인가.”고 하였다.

④ 예전 邵康節의 아들 伯溫이 **心**의 출입을 논하면서 “無乎不在, 亦無有處”라고 하였는데, (『性理大全』의 末編에 보임) 선조의 말은 모두가 이에 근본한 것이었다. 모씨가 이 두 구절을 집어내어 선조께서 ‘**心**은 **理**’라고 여겼음을 증명하고, 단정하기를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일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

는 『맹자』에서 夷之란 자가 儒家의 설을 墨家의 설에 적용한 것과 같다.

⑤ “몸에 가득한 것이 모두 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性, 情, 志, 意가 모두 心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운운한 것은 교묘하기는 교묘하다. 그렇지만 心이 만약 理라면 또한 장차 “情, 志, 意는 모두 理이다.”고 말할 것인가?

⑥ 일찍이 某氏가 저술한 『檢本救編』을 보았는데, 전체 내용이 모두 心은 理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倂翁이 극구 칭찬하였으니, 매우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이다. 무릇 선현의 글을 읽되 말을 한 본뜻을 살피지 않고 곡해하며 억지로 해석해서 자기의 견해에 부합시키니, 이것이 후학이 선현을 높이는 뜻인가? 대체로 茶田께서는 ‘心卽理’라는 세 글자가 자신의 확고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주장하도록 맡겨둔 것일 뿐이다.[退溪가 王陽明의 학술을 비판하기를 “이 사람이 ‘心卽理’를 창조했다.”고 하였다. ○ ‘창조했다’는 ‘創’자를 착안해서 보아야 한다.]

⑦ 지금 이 글들은 사안이 우리 선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대략 조목조목 변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아줄 것을 기다린다.<sup>34)</sup>

34) 鄭道鉉, 『厲菴集』 卷7, 「讀晦峰集河謙鎮條辨」, 26관, 후면, “①謹按, 先子此說, 蓋論心有出入而發此言也, 非指心之本體而言也. 嘗與南秋江論心之出入曰: ‘自身坐於此而心遊千里之外, 須與卷在腔子裏.’ 云云. 然則先子所謂‘無乎不在, 亦無有處’八字, 與此暗合, 不其然矣乎? 心之在此在彼, 故曰: ‘無乎不在’也. 亦無一定處, 故曰: ‘亦無有處’也. 若使寒暄問心之本體, 則必問曰: ‘心是何物也?’ 不必曰: ‘心在何處也?’ ②心卽理, 若如某氏說, 則理實無物不有也. ‘亦無有處’四字, 果是理之當體乎? 先子理氣論有曰: ‘理者, 無營無爲也. 氣者, 有運有用’云云, 此蓋理氣之不相混而心性之所由分也. 既曰心卽理, 則理亦有營有爲而心亦無運無用乎? 然則先子之意, 抑必以心屬氣, 亦已明矣. ③性無爲, 心有爲, 天下之所共知, 故尤翁嘗曰: ‘性屬理, 心屬氣, 如青天白日, 有目皆睹, 特瞽者不見, 何諸家之若此其紛紜也.’ ④昔康節之子伯溫, 論心之出入, 曰: ‘無乎不在, 亦無有處.’-見性理大全末編- 先子之言, 皆本於此也. 某氏之執此二句, 以證先子之心卽理, 而斷之曰: ‘我東理學, 自一蠹始.’ 則是夷之之援儒而入於墨也. ⑤滿體皆心, 故無乎不在, 性情志意從心生, 故無乎不在云云, 巧則巧矣. 然心若卽理, 則亦將曰情與志意皆是卽理乎? ⑥曾見某氏所著檢本救編, 全篇皆是心卽理, 倂翁極口稱之, 甚可異也. 凡看先賢文字, 不察立言之本志, 而曲解強辯, 務合於己見, 是亦後學尊嚴之意乎? 大抵茶田脚下心卽理三字, 是乃自家之鐵案, 故每見此等文, 任其自主而已矣.[退溪譏陽明學術曰此人創心卽理 ○ 創字當着眼看.] ⑦今於此文, 事係先子, 故不得已略加條辨, 以俟知者之公眼.”

정도현의 반박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여창의 心에 대한 언급은 心의 出入을 논한 것이지 心의 本體를 논한 것이 아니다. 한훤이 질문한 뜻도 心의 출입을 물은 것이지 心의 本體를 물은 것이 아니다.

둘째, 理는 營爲가 없고, 氣는 運用이 있다. 하겸진의 주장대로 ‘心이 理’라면, 理가 營爲가 있는 것이 되고, 心이 運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정여창은 반드시 ‘心은 氣에 속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셋째, 송시열도 性은 理에 속하고 心은 氣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넷째, 정여창의 언급은 『성리대전』에 보이는 心의 出入을 논한 邵伯溫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으로 ‘정여창이 心은 理라고 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빠짐은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유가의 ‘若保赤子’를 묵가의 ‘愛無差等’으로 이해한 夷之와 같은 격이다.

다섯째, 하겸진의 말대로 ‘心은 理’라면 ‘心’에서 생겨난 情, 志, 意도 모두 理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옳지 않다.

여섯째, 하겸진의 스승인 곽종석은 ‘心은 理’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의 주장을 방임하였다. 퇴계는 왕양명을 ‘心은 理’라는 설을 창조했다고 비판하였다.

韓末에 이르러 心이 理인가 氣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논쟁점으로 제기된 불씨를 안은 문제였는데, 정도현은 心은 氣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心과 性을 논한 논변류의 작품 「心性論」에서 “性은 營爲가 없는 것이고 心은 營爲가 있는 것이다. 心이 이미 營爲가 있다면 氣에 소속시키지 않을 수 없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心即氣’의 입장에서, 하겸진이 그의 선조인 정여창의 설로 그의 스승인 전우를 비판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하겸진과 곽종석을 아울러 이황의 설로 통

35) 鄭道鉉, 『厲菴集』 卷9, 「心性論」, 16판, 후면, “性是無營無爲者也, 心是有營有爲者也. 既有營爲則恐不可以不屬氣分.”

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현의 ‘心卽氣’의 심성론은 사실 스승 전우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우는 氣로서의 心은 理로서의 性에 근본하여야 한다는 ‘心本性說’을 근거로, 여기서 나아가 性을 높이고 心을 낮추어야 한다는 ‘性尊心卑說’ 및 性을 스승으로 받들고 心은 제자로서 性을 따라야 한다는 ‘性師心弟說’을 독자적인 성리설의 이론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sup>36)</sup>

그가 일찍이 전우로부터 심성론을 전수받았을 때 한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었다.

心能尊奉性	심은 능히 성을 높여 받들어야 하니
授受是師弟	명령하고 명령을 받음이 스승과 제자라네
孟訓亦分明	맹자의 가르침이 또한 분명하시니
歸求味到底	돌아가 찾아서 철저하게 음미하리라 <sup>37)</sup>

24세에 지은 오언절구로, 기구와 승구는 전우로부터 전수받은 ‘性師心弟說’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전구와 결구는 전우의 설이 ‘道性善하면 서 言必稱堯舜’한 맹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집으로 돌아가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정도현은 이렇게 젊어서부터 뜻을 두었던 심성론을 한 평생 꾸준히 연구해 왔으니, 위에서 분석한 하겸진에 대한 비판이 71세에 이루어졌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 규범주의적 禮論

정도현에게 심성론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간으로서 ‘人事의 儀則이고 天理의 節文’인 ‘禮’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문제이다. 그가 심성론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所當然의 일을 살피지 못하면서

36) 금장태, 앞의 책, p.127.

37) 鄭道鉉, 『厲菴集』 卷1, 「謹次師門寄贈性師吟」, 2판, 전면.

어느 겨를에 所以然의 이치를 논하겠는가?〔不察所當行之事，而何暇論所以然之理乎?〕”라고 일단 사양했는데<sup>38)</sup>, 그가 말하는 ‘所當行之事’는 바로 禮로 이의 실천이 심성론 못지않게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문집 곳곳에 禮를 공부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신주를 만드는 나무는 꼭 밤나무일 필요는 없다. 비록 감나무 따위라 하더라도 또한 좋다. 만약 밤나무로 만들 경우 비록 뜰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들더라도 상관없다. 어찌 꼭 구차하게 개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구하겠는가?<sup>39)</sup>

예시한 내용은 그가 1918년부터 1922년까지 계화도에서 공부할 때 메모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華上語錄』의 한 단락이다. 민간에서 신주의 재료를 ‘두려워한다’는 ‘戰栗’의 뜻을 취하고 귀신이 개와 닭의 울음소리를 싫어한다고 여겨 깊은 산중의 밤나무를 구하여 만드는데, 이러한 풍속은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예에 대하여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강구하고 있는 예론의 철두철미함을 엿볼 수 있다.

임금과 신하는 귀천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당 아래에서 절하고, 부자간에는 은혜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당 위에서 절한다고 程子が 말하였다. 그런데 朱子는 “자식과 며느리는 일레이니, 분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또 「答李晦叔」의 편지에서 분명히 당 위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섬돌 아래서 절하는 것은 朱子의 초년의 설이었던 듯하다.<sup>40)</sup>

38) 鄭道鉉, 『厲菴集』 卷9, 「心性論」, 16판, 후면.

39) 鄭道鉉, 『厲菴集』 卷6, 「華上語錄」, 11판, 전면, “主材不必求栗木, 雖柿木之類, 亦好. 若栗木則雖取庭下木, 似不未安, 何必苟取於鷄犬不聞處乎?”

40) 鄭道鉉, 『厲菴集』 卷7, 「柳下散錄」, 19판, 전면, “君臣有貴賤, 故拜於堂下, 父子主恩, 故拜上. 程子有是說. 然朱子曰: ‘子婦一例也. 不當分別.’ 又「答李晦叔」書, 分明以堂上言之. 然則婦拜階下, 似是朱先生初年說也.”

자식과 며느리의 절하는 위치에 대하여 정자와 주자의 설이 당 위와 섬들 아래로 차이가 나고 있다. 정도현은 이런 사소한 문제도 심상하게 보아 넘기지 않고 『朱子全書』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예가 대단히 규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는 시작품에서 禮가 무너져가는 당시 사회를 개탄하는 심정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前略)

吁嗟今何世	아! 지금이 무슨 세상인가
友紀日沈淪	사귀는 기강이 나날이 타락하여
怪鬼爭百出	괴귀들이 다투어 나타나
詭賢是功臣	현인을 욕하는 자를 공신으로 여기고
昨日冠裳者	지난날 조정에서 벼슬했던 자들이
翔走一朝羈	하루아침에 활개치고 다니며 떠든다
彝倫從此滅	윤리가 이로부터 사라지고
吾道日荒蕪	우리의 도가 나날이 황폐해져
家國并受辱	국가가 아울러 모욕을 받고 말았으니
如何生不辰	어찌하여 내가 이런 때 태어났단 말인가
太息何所怨	누구를 원망하며 길게 탄식하리요
但恐學未醇	단지 학문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두렵다
夙夜憂兢兢	밤낮으로 근심하며 조심해야
庶不負吾眞	나의 眞性を 저버리지 않게 되리라
蹣跚賴何處	외로이 어느 곳에 의지할 것인가
惟有彼蒼旻	오직 저 푸른 하늘이 있을 뿐
聖人豈欺余	성인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斯道終不湮	斯道는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sup>41)</sup>

37세였던 1931년에 지은 장편의 오언고시인데, 현실을 개탄하는 침중한 정서가 묻어나고 있다. 너도 나도 그 동안 존경했던 현인들을 공격하

41) 鄭道鉉, 『厲菴集』 卷1, 「奉和族兄春岡公, 自警」, 11판, 후면.

는 것으로 공로를 삼고, 예전의 벼슬아치들은 나라를 멸망시킨 책임 의식이라곤 하나도 없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 예가 사라지고 유학의 도가 황폐해져 결국 나라마저 망해버린 이러한 시대. 하필 이러한 때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슬퍼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닮을 것인가? 밤낮으로 조심하여 나의 성품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이 斯道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이다.

정도현에게 있어 ‘禮’란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말하는 오늘날의 ‘에티켓’ 정도에 그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柳下散錄」에서 “사소한 머리카락이지만 관계된 것이 매우 막중하다. 문화인과 야만인의 구분,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여기에서 나누어진다.”<sup>42)</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예를 얼마나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心卽理’의 심성론은 마음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각성시키는 의미가 있고, ‘心卽氣’의 심성론은 인간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도덕규범의 객관적 표준에 순응하기를 요구하는 규범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sup>43)</sup> 그런데 정도현은 전우의 ‘性尊心卑說’과 ‘性師心弟說’을 섭취한 ‘心卽氣’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보수적이고 엄격한 예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V. 맺음말

정도현은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지극히 왜곡된 사회를 살았으며, 좌우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폭발한 6.25전쟁도 겪었다. 그리고 고령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의 유신체제라

42) 鄭道鉉, 『厲菴集』 卷6, 「柳下散錄」, 6판, 전면, “一髮之微, 所係甚重, 華夷之分, 人獸之判, 於此焉分.” (「柳下散錄」의 저작 시기는 불분명하다.)

43) 금장태·고광직 공저,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4, p.214.

는 왜곡된 사회를 살아야 했다.

왜곡된 사회에 대한 개인의 대응 자세는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체계에 맞도록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유형, 둘째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지키며 왜곡된 사회가 바로잡히기를 기다리는 유형, 셋째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바꾸어 왜곡된 사회에 영합하는 유형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유형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고, 셋째 유형은 가장 비굴한 삶의 자세로 모두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도현은 일찍이 蘭을 읊어 “秋蘭을 엮어 차고자 했던 屈原의 한탄, 외로이 향기를 머금고 있다는 朱子の 탄식. 텅 빈 산에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홀로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보존하고 있네.”<sup>44)</sup>라고 하였다. 그 자신의 향기를 지키며, 곧 심성론에서의 性을 높이고 인간으로서의 禮를 지키며 왜곡된 사회가 바뀌기를 외롭게 기다리는 蘭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蘭이 과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이 없다면 외로이 향기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일까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44) 鄭道鉉, 『厲菴集』 卷1, 「蘭」, 2판, 전면, “紉佩靈均恨, 含薰晦父歎. 空山人不識, 獨保秋風寒.”

<參考 文獻>

鄭道鉉, 『厲菴集』

田 愚, 『良齋集』, 『韓國文集叢刊』 335, 민족문화추진회, 2004.

萬姓大同譜發行所, 『萬姓大同譜』

河謙鎭, 『晦峯集』, 아세아문화사, 1985.

금장태, 「心卽氣說의 쟁점과 간재의 심설 논변」, 『한국유학의 심설』, 서울대 출판부, 2002.

금장태·고광직 공저,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4.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정성철, 『조선철학사』 이조편, 좋은책, 1988.

### Abstract

*The Life and Scholarly Realm of Ryeoahm(厲菴) Jung, Do-byeon(鄭道鉉)*  
/ Lee Eui Gang\*

This paper shows studies on the life and scholarly realm of Ryeoahm Jung-dohyeon(1895-1977) by analyzing 『Ryeoahm-jib(厲菴集)』 which consists of his writing and appendixes. As a scholar Jung-dohyeon established a value system, by which he lived whole the colonial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What kind of life should one lead when the social needs do not accord with his value system? To search answers of this question, studying on his life and studies furnishes some guidance.

Jung-dohyeon was born at Micheon in Hamyang on July 22, 1895(Kojong 32) as a first son of Jung-jaeok and Nho from Pungchoen family. His family origin is Hadong. Jung-yeochang, one of the five wise in the Joseon Dynasty, is his fourteenth-upper-generation ancestor, by whose life and studies Jung-dohyeon was deeply influenced. At the age of 7 Jung-dohyeon starts to study in a village school. By the age of 20 he deepens his studies keeping company with virtuous scholars. His full-dress scholarly steps start when he has Jeon-woo(1841~1922) as a teacher. Jeon-woo's studies on Sungrihak(性理學) was handed down from him to Jung-dohyeon, who concentrates on studying deeper in obedience to Jeon-woo's will after his death.

Jung-dohyeon's scholarly realm is established on the two wheels. One is Shimsungron(心性論); and the other is Yehron(禮論) His Shimsungron stands on the perspective of Shimzukki(心卽氣) that derives from Jeon-woo. Jeon-woo consistently argued that Sungjonshimbiseol(性尊心卑說) and Sungshimjaeseol

---

\*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Education, Wonkwang Univ. / jgutang@wku.ac.kr

(性師心弟說). The former means that Sung(性) should be place higher and Shim(心) lower. The latter means that Sung(性) should be regarded as a teacher and Shim(心) should follow obey Sung(性) as a disciple. Jung-doHyeon is devotedly following Jeon-woo's theory of Shimsungron.

Jung-dohyeon considered practice of Yeh(禮) to be as important as the theory is. He was very thoughtful and scrupulous on searching every proper theoretical basis on each item of decorum. For him 'Yeh(禮)' meant more than etiquette that only indicates the formal rules of correct of polite behavior in society. His theory of Yeh(禮) holds a very normative feature, which is related to the Shimsungron of Shimjukki(心卽氣).

Three types of reaction of individuals can be shown against a perverted society. The people from the first type are those who try to correct the society according to their value system. Secondly, there are people who await the change of society sticking on their value-system. The last type is who converts his value-system to adjust himself to the society. People from the first type deserve to be valued highly for the most positive way to live while the one who is from third type deserves to be denounced.

He compared his life to an orchis that preserves its fragrance against cold wind of autumn even though nobody appreciates it. Like orchis he devoted his life to heighten his Sung(性) and preserve his Yeh(禮) awaiting the change of society. However it should be concerned carefully that an orchis could live with its fragrance if the soil where it roots does not exist.

**【Key words】** Jung-dohyeon(鄭道鉉), Ryeoahm-jib(厲菴集), Jeon-woo(田愚), Shimsungron(心性論), Yehron(禮論)

투고일 : 5월 8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